

삼바, 연초부터 대규모 CMO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생산)

높은 수익성에 기업가치 'UP'

美 제약사와 355억 규모 계약
주가 전일보다 5.65% ↑ 거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초부터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355억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출액의 6.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수주계약에 힘입어 이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일보다 5.65% 오른 34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계약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까지 355억원을 받게 되며, 고객사가 계약된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2027년까지 최대 2억4610만 달러(약 2797억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기준, 삼성바이오는 CMO 27건, 위탁개발(CDO) 및 임상시험수

탁기관(CRO) 14건 등 41건의 수주 누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은 지난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CMO 수주 건수를 12건 늘려 기존 27건에서 39건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며 "올해 말까지는 3공장 생산 능력의 50% 이상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2020년이 되면 CDO에서 50건 이상 수주해 글로벌 CMO 시장의 50%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이같은 행보로 기업 가치도 상승 추세다. 이날 삼성바이오의 수익성은 글로벌 CMO 기업인 스위스 론자(Lonza)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ktb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의 현재 시가총액에 반영된 CMO 가치는 15조 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기준으로는 지난해는 전년 대비 8% 성장했고, 올해는 15%로 성장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EBITDA 마진율은 28%로 Lonza 27%보다 높았으며 중국 1위 CMO기업인 우시(WuXi) 바이오로직스 31%보다 소폭 낮았다.

EBITDA는 세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EBITDA 마진은 EBITDA를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로 기업 수익성을 비교할 때 쓰인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일 진행된 삼표 우리맛 워크숍에서 최정윤 우리맛연구팀 팀장이 봄나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삼표

맛도 향도 좋은 '봄나물'

건강에도 좋은 이유는?

삼표가 냉이, 원추리, 달래, 숙 등 한 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봄나물 15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향미 분석을 통한 나물마다 가지고 있는 향과 조리법에 따른 맛과 향 등도 종합 분석했다. 또 봄나물과 잘 어울리는 재료, 소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신메뉴도 소개됐다.

삼표는 2일 서울 중구 삼표 우리맛

공간에서 '우리맛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달 30일부터 열린 '삼표 우리맛 워크-봄나물'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우리맛 워크숍'은 삼표가 약 2년에 걸쳐 진행한 '봄나물'에 대한 우리

맛 연구결과를 총망라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봄나물 20종 중 지금 시기에 구할 수

있는 15종(냉이·원추리·달래·숙 등)의 봄나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삼표는 지난 2016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우리맛 연구중심 삼표'라는 슬로건을 제안했다. 소중한 우리 전통의 명맥을 잇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우리맛을 보다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삼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맛 연구중심'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한국 식문화와 우리맛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보다 쉽고 맛 있고 건강하게 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삼표 우리맛 연구는 우리맛을 구성하는 식재료와 소스, 조리법 등을 과학

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우리맛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연구를 통해 우리맛이 더욱 다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봄나물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재료 중 하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보가 없어 '봄나물 요리가 어렵고 조리법도 제한적이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우리맛 워크숍에서 선보인 우리맛 연구 결과에는 봄나물에 숨겨진 향미 특징, 조리과학 원리를 적용한 손질 및 조리법, 우리맛 양념공식 등 봄나물을 맛있게 쉽게 즐길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됐다.

이날 삼표는 봄나물로 만든 새로운 메뉴들이 선보였다. 참나물을 잘게 다져 토마토, 양파와 섞어 만든 '참나물 살사 소스'와 은달래 머리 부분을 다져서 된장에 볶고 갈아 만든 '은달래 버터'는 이색적인 재료와 맛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삼표는 우리맛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보고서 발간, 우리맛 워크 체험 전시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우리맛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주고, 셰프나 식품 관계자 등 전문가들에게는 우리맛과 요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삼표는 앞으로도 우리맛 연구를 지속하고 그 결과물을 소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식생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재벌가 2, 3세와 '대마초' 그 오래된 역사

재벌가 3세 줄줄이 경찰 수사선상 적발 어려운 '액상대마' 특히 급증

현대와 SK 등 재벌가 3세들이 줄줄이 대마초 혐의로 경찰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재벌가 자제들의 일탈이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재벌가 자제들이 대마초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최근 10년 동안만 10여명에 달한다.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H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정모씨(당시 19세)와 S그룹 창업자의 손자 최모씨(당시 20세)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S대기업 이사의 아들 박모씨(당시 20세)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 3g을 구입한 뒤 집 근처 공원과 이태원 호텔 부근 골목 등지에

서 돌려 피웠다. 또, 재판을 받은 박모씨는 홍콩에서 구입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담배에 섞어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녀 정모씨(당시 21세)가 대마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1년 8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 근처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가 떨미가 잡혔다. 2013년 4월에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김모씨, 홍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정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홍씨는 상습범행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주한미군을 통해 반입한 '액상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벌가 3세들이 무더기로 법원 신세를 졌다. 당시 인천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가 손자인 정모씨(28)와 또 다른 H그룹 차남 김모씨(27)는 오산의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M상병(23)을 통해 국제택배로

반입된 대마를 구입해 피우다 적발됐다. 당시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씨, 모 병원장 아들, 모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도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잠잠하던 재벌가 대마초 사건은 2018년 또 다른 S그룹 2세인 허모씨(41)가 대마초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한 번 불거진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액상대마를 국내로 반입해 흡입하다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 그룹은 당시 부사장이던 허씨를 보직해임한 뒤 차후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격리시켰다.

검찰관계자들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대마를 합법화한 곳이 많다"면서 "해외유학 시절 별다른 거리낌없이 대마를 접하게 된 상류층 자제들이 귀국한 뒤에도 계속 대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액상대마'는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이 쉽지 않아 이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

메디톡스 국제 피부과 학회 '코리아더마 2019' 참가

메디톡스는 글로벌 미용성형 분야의 리더 기업으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더마 2019(Korea Derma 2019)'에 메인스폰서로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코리아더마는 대한피부과사회 주최한 첫 국제 피부과 학회로, 글로벌 미용성형 분야의 중심지인 한국의 최신지견과 기술에 관심을 높은 세계 49개국의 피부과 전문의 1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회에서 메디톡스는 메인스

폰서인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참가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각의 특징점을 갖춘 보툴리눔 독신 제제 3종(메디톡스, 이노톡스, 코어톡스)과 국내 필러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학회 내 최대 규모의 홍보 및 이벤트 부스에서 적극 홍보했다. /이세경 기자

서울유유·셀바이오텍 발효유 제품 개발 '맞손'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

서울유유협동조합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전문기업 셀바이오텍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듀오락 브랜드로 유명한 셀바이오텍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만 20여년 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토종기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명실상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서울유유협동조합은 셀바이오텍에서 개발한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는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제품 및 유제품에 접목시켜 고객들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문진섭 서울유유협동조합 조합장은 "서울유유협동조합과 셀바이오텍의 이번 MOU 체결식은 식음료 사업과 유산균 사업의 협력사로서 제휴이기 때문에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양사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에서 우선 협력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고객층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